

Merck, IT 화학소재 개발 · 전략 발표

한국Merck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인 안드레아스 크루제 박사가 11월7일 부품·소재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Materials & Components Technology)에서 IT 화학소재 개발 현황 및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안드레아스 크루제 박사는 Merck의 성장 배경 및 저력, 원부재료에 대한 기술동향 및 미래, 개발제품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동아시아와의 협력 방안, 발전 비전, 그리고 투자방향 및 계획에 대해 약 30분간 발표했다.

부품·소재 국제포럼은 부품·소재산업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국내·외 글로벌기업의 경영자들과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세계적인 변화 양상을 살피고, 국내기업들의 생존전략과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기업, 학계,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2006년 개설한 포럼으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전 GE 회장인 잭 웰치 등이 특별강연을 한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Merck의 안드레아스 크루제 박사를 포함해 MIT 미디어 연구소 명예소장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스텐포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폴 로머,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등 산업계와 학계의 저명인사들이 참가해 발표했다.

한편, Merck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학 및 의약기업으로 1989년 한국에 법인 설립 후 2002년 신속하고 안정적인 액정 공급을 위해 경기도 포승공단에 국내 최초로 액정 생산 및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액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11/08>